

KIAST-ATC, 무인항공 안전 위해 손잡았다

항공안전기술원, 空敎司와 인력·인프라 공유 MOU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무인항공기시스템(UAS)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 등 무인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공군교육사령부(AT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연명 KIAST 원장과 최현국 ATC 사령관(중장)이 지난 8일 오후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체결한 합의서에는 KIAST와 ATC의 교류협력을 통해 항공안전 전문인력·인프라 공유 등에 대해 서명했다.

KIAST는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예방에 관한 인증·시험 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도교통부 산하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ATC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우주·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다차원적인 미래 전장과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등 공군 교육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연명 KIAST 원장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더불어 공역·공행시설·항공법 등과 관련한 민·군 공동협력은 필수적”



항공안전기술원은 최근 무인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공군교육사령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AST 홈페이지 갈무리

이라며 “이번 교류협력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국 ATC 사령관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인항공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발전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인프라 구축에 한걸음 나아갔다”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군 교육훈련 체계발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서 기자 atbodo@

장애인 차별... 로스쿨 입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제약자 이중적·상호보충선발 '퀴터제 도입' 촉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란 대명사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 역시 이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제공

◆전국 로스쿨, 10년 간 장애인 입학 0.65% 불과
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 따르면 전국 25곳 로스쿨의 10년 간 장애인 입학선발인원 평균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신문’이 교육부에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와 2013년 참여연대의 자료 등에 따르면 10년 동안 로스쿨 25곳에 입학한 총 인원은 20,77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은 135명으로 0.65%의 수치에 불과하다. 심지어 중앙대의 경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크게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란 명목으로 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사실상 이 같은 ‘특별전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경제적 배려 대상자 우선 선발로 인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솔루션 관계자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영역별 선발비율은 딱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장애인들은 특별전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경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25개 곳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대상’에게만 30%에서 최대 50%의 우선 선발 쿼터제를 두고 있어 장애인의 로스쿨 관문은 문턱조차 통과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형평성 문제 제기- 솔루션, “이해할 수 없는 답변”
이와 관련 기 모씨(지체1급 장애인)는 “18년 간 스케이트 전문 선수로 활동하며 국가대표를 꿈꾸던 운동 선수였으나 5년 전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 지체1급의 중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면서 “이후 스포츠 법학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현 로스쿨 제도는 장애인에게 이중적 차별을 하고 있어 꿈을 이루는데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스쿨을 준비 중인 장애인 당사자들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장애인 별도 선발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다만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을 기존 5%에서 7%로 높이는 등 병행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입학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솔루션은 “사회적 약자 계층 선발에 최소한의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전형 개설의 취지를 (교육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솔루션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안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별로 지원자가 저조할 경우 상호 보충 선발을 전제하고 일정 비율의 ‘퀴터제 도입’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김영식 기자

일본뇌염은 여름에?... “모기, 가을에 더 기승”

9월 정도 이어 10월 핏택서 발생... “급성 뎀 치명적”

지난달 경북 청도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 평택에서도 발생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빨간집모기” 등 모기 물림으로 발생하는 일본뇌염은 통상 여름철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가을철인 9월~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70대 여성 환자가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최종 일본뇌염으로 확진, 판정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만으로 당시 모두 3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경북 청도에선 60대 여성 환자가 지난달 11일 일본뇌염 환자로 올해 처음 질병당국으로부터 확진을 받기도 했다.

해당 환자는 지난 8월 15일부터 발열·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당시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2013년~2017년 기간 국내 일본뇌염 환자 총 117명 중 무려 14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전체 환자의 91.4%인 107명이 가을철인 9~11월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 매개인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여름이 아닌 가을철에 대부분 발병하고 있다는 셈이다. 일본뇌염을



여름 질환으로 알려진 일본뇌염이 실제 9~11월 기간 가을철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픽사베이 제공

유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급증해 늦은 10월까지 주로 활동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에 그치는 게 99% 이상이지만 만약 급성뇌염으로 진행되면 20~30%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질병으로 분류된다.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도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논·축사 등 위험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우 예방접종 받기를 권장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모기를 피하기 위해 밝은 색 긴 소매와 긴 바지 복장을 착용하고 모기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한다”며 “당국은 모기 서식지로 보이는 축사나 웅덩이 등에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ys97kim@

안전 운전·준법 실천 고객에 자동차 할인해준다

현대차, 3년내 고객 재구매 뎀 400만원 저렴

3년간 안전·준법 운전을 실천한 고객이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중장기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부주의 운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운전 캠페인으로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가입 후 3년간 무사고·무과태료·무법칙금운행을 할 경우 향후 1년 이내 현대자동차 및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 재구매 때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차종에 따라 ‘굿 드라이버 I’, ‘굿 드라이버 II’, ‘굿 드라이버 III’로 분리해 개별 운영될 예정이다. 굿 드라이버 I 프로그램은 가입 비용 10만원으로 3년간 무사고·무과태료·무법칙금 운행 후 재구매할 경우 2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굿 드라이버 I의 가입대상 차종은 엑센트, 아반떼, i30, 벨로스터, 아이오닉, 코나, 투싼 등 현대자동차의 소형~중형 차종이다. 굿 드라이버 II 프로그램은 가입 비용 15만원으로 굿 드라이버 I과 동일하게 3년간 무사고·무과태료·무법칙금 준수 시 300만원의 재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굿 드라이버 II의 가입대상 차종은 쏘나타, 그랜저, 아슬란, i40, 쉐타페, 맥스크루즈, 넥쏘 등 현대자동차의 중형~대형 차종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차종도 포함한다.



현대자동차는 안전, 준법 운전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재구매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현대자동차 제공

굿 드라이버 III 프로그램은 에쿠스(VI) 및 G70, G80, EQ900 등 제네시스 브랜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입 비용은 20만원으로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일하게 3년간 무사고·무과태료·무법칙금 운행 시 400만원의 재구매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굿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차량 출고 후 3년 이내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쇼핑몰을 통해 직접 가입하면 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운전 생활화를 지향하고 준법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운전을 준수하고 준법의식이 높은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서 기자

2018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견고 싶은 황룡강! **N 노란꽃잔치**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10.12.(금)~10.28.(일) 장성군 황룡강 일원 17일간

장성군 Jangseong 장성군축제위원회

도 대표축제 선정 2018 우수축제

이색체험 동물과 함께하는 오감체험장 앵무새특별관

특별정원 가을을 수놓은 꽃과 빛의 향연 황룡정원